

조국 국감... 첫날부터 충돌·파행

6개 상임위 증인 채택 기싸움 문체위, 한국당 25분만에 퇴장 교육위, 입시문제 놓고 고성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국감이 진행된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조 장관 논란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당 빈 국감장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안민석 위원장과 의사진행 발인 관련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의 가장 강한 충돌이 벌어진 '전장(戰場)'이었다. 문체위는 전날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이에 고성인 오갔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조국 딸 입학 취소하느냐", "자립형 사립고 폐지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연달아 던지며 몰아세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을 문제 삼자, 민주당이 이를 '정쟁 시도'로 규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위원회 등에서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 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한국의원들은 결국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도 보이콧했다. 결국 문체위의 첫날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됐고 향후 국감 일정도 불투명해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을 감사하는 대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한 자신의 답변을 놓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길게 말씀하신 그 답변이 유은혜라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자, 즉각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라"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 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정부위에서는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으며 과방위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내일 4대 경제단체장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소비가목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준(準)디플레이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경제 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경제인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경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부진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 현황, 내수 급감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제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서 첫 만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탁현민 "내달 김정은 부산 방문 준비"

"김 위원장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2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 것(상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김 위원장이 오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물음에 "남북 양자(회담)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 위원장이) 다자 회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남북인 부산에 오신다면 여러 장치도 만들어야 해서 준비할 것도 많고 일도 많다"며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상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오는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탁 자문위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적으로 당 홍보위원직을 제안받았으나 안하겠다고 했다"며 "정치하시는 분과 저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승민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

"변혁' 출범 첫 회의... 당권파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2일 독자 행보를 개시하면서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혁의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승민 의원이 주재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4일 변혁에 동참할 원의 지역위원장들, 6일 당 청년정치학교 1~3기 수료생들을 각각 만나는 등 '개혁적 중도 보수'에 동의하는 당 안팎의 인사들을 접촉해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혁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비상기구"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질질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통합을 주장한 데 대해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보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변혁을 중심으로 이 길에 동참하는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혁 측 움직임에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변혁 회의 1시간 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권파 임재훈 사무총장은 "비상행동(변혁의 다른 약칭)이 비상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머지않아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당의 국민 신뢰 회복 정책을 강구해 국민과 당원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도 "5개월간 끊임없이 당 대표를 흔들고, 이제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데 차가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 "강력한 검찰 개혁" vs 야 "조국 엄정 수사"

대검찰청 자체 개혁 방안 엇갈린 평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2일 민주당은 검찰에 보다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고강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들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가장 증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된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침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수부 축소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논의는 없어 '양꼬없는 짬뽕'이라며 "중앙지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8번째 정권인 문재인 정권도 몰락으로 가고 있다.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은 조국을 구속하는 것"이란 사실을 검찰을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에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국민은 '황제소환'을 곧 보게 될 것 같다"며 "정경심-조국 부부를 위한 '특혜 이벤트'가 검찰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홀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암 222-9054	· 총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52-0175	· 백 운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8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9-1500	· 광 산 944-0444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경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